

해결책 캄캄한

미국의 간호원 과부족 현상

대한일보 의신부기자 김 유 원

간호원 과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이며, 그 정도가 이제 한계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 인류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현대이지만 환자를 질병에서 구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원의 부족으로 현대의 환자들은 불안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

폭발하는 간호원 수요에 간호원 양성은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간호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에 등록된 R.N.들(The Registered Nurse) 조차도 자주 퇴직하는 바람에 간호원의 지나친 모자람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간호원 과부족 현상도 세계 어느나라에 못잡게 생각,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의 결사적인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원 과부족 현상은 더욱 깊어질 따름이라는 미국 의료계의 격정이다.

미국의 간호원 배출은 그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근심스런 상태.

이 간호원 과부족 현상은 보건관리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질병의 위험을 더욱 보편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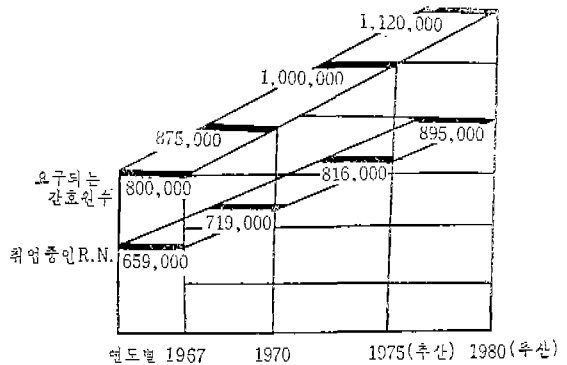
대도시의 종합병원들이 특히 이 간호원 과부족 현상에 골방을 먹는다.

아울러 가정을 가진 기혼여자 간호원들의 퇴직 때문에 병원당국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자꾸 늘어나는 수백만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병원당국들의 의료 봉사활동과 더불어, 간호원 과부족 현상의 악화가 확실하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H.E.W.(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보건·교육·후생성) 당국의 최근 통계를 보면, 간호원 국가자격고시에 합격한 후 정식 등록된 간호원 중 약 720,000명이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수요보다 약 155,000명이 모자라는 숫자라는 것이다.

1975년까지 미국간호원의 절대수요는 어림잡아 1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때가서의 간호원 부족은 약 200,000명이 될 것이라고 이 통계는 추산했다. (별표 참조)



지난 몇년동안, 연방정부·주정부·시 군보건당국과 민간소유 의료기관들이 한결같이 간호원 양성을 대폭 늘리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간호원 수요를 충족하는데 성공치 못했던 것이다.

죽음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간호원 과부족 현상이 뜻할 수 있는 것 중의

가장 좋은 보기를 하나 들면, 그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죽음이 초래되는 점이다.

70년 11월 중순, 「뉴욕」시의 18개 중요 시립병원의 증견 의사들은: 해마다 미미 막을 수 있는 죽음이 간호원의 파부족 현상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사들은 또 「뉴욕」시의 공공병원들은 그들의 예산에서 인가된 기간간호요원 T.O.의 40%도 채 못 갖고 있다고 밝혔다.

3 병원의 경우는 T.O.의 10%도 채 안된다는 것이다.

「뉴욕」시 보건관리들은 해마다 1,400명의 간호원들을 양성, 시립병원에 근무케 할 수 있는 간호원 양성 집중계획이 실천에 옮겨져 오고 있으나, 이 계획은 간호원들이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 적당한 살림집이 부족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해마다 1,200명의 간호원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또 증견 의사들은 크나 많은 R.N.을 즉각 확보할 대책과 R.N.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켜 그들이 현업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에서 초청해오는 간호원들

「뉴욕」시의 간호원 부족문제의 부분적 해결책으로써, 「뉴욕」시 광국은 퇴직이 가까운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간호원으로 훈련시킬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의 H.E.W.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다.

H.E.W.관리들은 이 계획이 잘만 실천되면, 다른 도시들도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려고 애쓰는데 많은 고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공공병원들은 이 훈련계획을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간호원 부족 상태가 이미 한계에 이르러 당면한 현실이 너무 촉박한 탓으로 이런 훈련계획을 통한 간호원 양성을 시간적으로 견디고 나갈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외국간호

원들을 데려오고 있다.

「뉴욕」시 「마운트·시나이·메디칼·센터」에서는 「영국」·「캐나다」·「오스트랄리아」 및 「아일랜드」등의 간호전문 「메스·컬」을 통해 간호원 초청 광고들 대대적으로 실행 중인 형편이다.

「워싱턴」의 「호스피털·센터」에서는 이미 「스웨덴」으로부터 많은 간호원을 초청해 왔다.

그리고, 「시카고」의 「쿠크·카운티」 병원은 「필리핀」의 간호원을 데려오고 있다.

또, 「달라스」의 「파크랜드·미모피얼」 병원은 69년 한해동안 104명의 간호원을 외국으로부터 초청해 와야만 했다.

사실, 미국 간호원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는 외국 간호원들에게 많은 매력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간호협회(A.N.A.)에서 확인한 미국 R.N.의 기준 보수는 일당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초일자 22「달러」에서 최고 40「달러」까지, 그리고, 「오버·타임」 근무수당은 한시간 초과에 7「달러」50「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중·소·도시에서의 간호원들 수입은 날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적절한 보기를 여기에 소개하면, 「셀프란시스코」의 11개 종합병원의 경우, R.N.의 초일 현행 보수가 일년에 8,220「달러」이고, 4년근무하던 연봉 10,200「달러」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본봉 이외의 여러가지 수당이 제공되고 있어 70년 현재의 수입은 1966년에 견주어 놀랄게로 약 2배로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퇴직 R.N.의 복직문제

이렇듯 대우가 파격적으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십만명의 자격있는 간호원들이 현업에 종사치 않고 있다.

외국 간호원 초청 탐색은 간호원 부족 상태의 한낱 임시 변동책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한 보건당국은 퇴직중인 미국의 R.N.들을 병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방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중이다.

「트스엔젤리스」의 「칼리포녀·호스피털·메디칼·센터」의 간호과장 「바바라·슈리」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트스엔젤리스」 지역에 살고있는 전 R.N.의 약20%가 간호업무에 종사치 않고 있다.

만약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간호원 부족은 해결될 것이다.』

경제적인 여러 조건들이 많은 퇴직중인 R.N.들의 병원 복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미스·슈리」는 『생활비가 올라가고 가족들의 수입이 적어지면, 간호원들은 다시 일터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지금 장기간 간호업무를 볼보지 않은 R.N.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재 교육 과정이 마련중에 있다.

연방정부는 간호원 재 교육 과정의 15개 종류에 모두 1백20만「달러」의 재정원조를 했다.

또한, 주정부, 시 군, 그리고 민간공공 의료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보다 많은 혜택을

간호원으로서의 복직 권유를 촉구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R.N.들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특별혜택을 이들에게 제의하고 있다.

① 「텍사스」주 「포드·워드」시에 있는 「올세인트·에피스코판·호스피털」은 기혼 간호원들이 그들의 근무 시간중에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24시간 계속 개방하고 있다

② 「아트카디아」에 있는 남「칼리포녀」 감리교 병원은 이 병원 근무자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학교를 두고 있는데, 이 보육 학교는 일주일에 6일, 그리고, 하루 9시간 씩 수업을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간호원들의 시간제 근무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혼 간호원들은 그들의 간호 기술을 다시 향상할 수 있고, 또 병원에서의 하기 힘든 야간 근무를 하므로써 집안의 수입을 높일 수 있는데 더욱 고무되고 있는 중이다.

늘고있는 의료시설들

간호원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간호에 적절을 기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시설의 이용이 저지되고 있다.

이 문제가 나타내는 두가지 예를 들겠다.

즉, 간호원 부족 때문에 「달라스」의 「바이트르·메디칼·센터」는 이 병원 건물 3층에 있는 전 병실의 200개「베드」가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오마하」에 있는 어떤 병원은 병실을 관리할 간호원이 모자라서 30개「베드」가 있는 3등병실을 70년 6월부터 폐쇄한 것이다.

가정 전담 간호원 구하기도 힘들어

보다 많은 간호원의 필요성이 벌써 긍정성은 병원에서 뿐만 아니다.

또한, 한가족의 전문 간호원을 구하기도 점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지방의 경우,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문 간호원을 가지려면, 그 필요한 절차가 우선 복잡하다.

먼저, 그 지방 간호협회나 혹은 그 지방 보건당국에 간호원 필요를 알려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구직중인 간호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절차가 귀찮아서 다음과 같이 불평하고 있다.

『끊임없이 전화전을 하지 않고는 간호원을 도저히 구할 수 없죠. 나중에는 신경질을 마구 내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요행히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원이 있을 경우엔, 전신만고 끝에 구할 수가 있죠.』

더구나,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들을 밤에만 돌보는 간호는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한다.

밤에 가정에서 간호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

① 범퍼가 들끓는 도회지의 밤거리를 여자가 다닌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② 낮 근무만 할 수 있는 조건 좋은 병원이 골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는 것 등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가정 간호원 이용의 기회가 점차 드물어져 가는 것은 심각한 사회 보건 문제이며, 특히 내륙 지방의 중소 도시, 소읍 및 시골에서 더 하다고 한결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해결책은 가능한가?

연방정부 고위 보건 관리들은 간호원 부족 문제는 종당에 가선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H.E.W. (보건·교육·후생성) 관리들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1950년에서 1967년 사이의 취업중인 R.N.들의 숫자는 무려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 고시에 합격, 정식 등록된 간호원들의 수가 같은 기간동안 134%나 뛰어들었고, 보조 간호원들은 놀랍게도 244%나 경증 뛰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간호원 부족 문제는 해결되고 말 것이라고 H.E.W. 대변인은 암시했다.

그리고, 이밖에 거론된 간호원 부족 현상 타개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쉬고있는 R.N.들이 점차 현역 간호원으로 복귀 중에 있다.

② 강사진 부족으로 많은 애트가 있지만,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남부 지방에서의 간호원 재교육과정과 간호원 양성 계획이 결과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③ 간호원들의 일상적인 간단한 업무들 비전문직 의료인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많아 전문 R.N.들의 업무량이 차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R.N.들의 새로운 분

야 일과 전문적인 간호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비례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R.N.들의 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가지 예로, 최근 미국 의학협회(A.M.A.)는 현재 의사들에게만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의료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전문간호원들에게로 넘겨져야 될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A.M.A.는 이것은 바로 현재 실현 의사부족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커다란 난제를 해결할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N.A. (미국간호협회)는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사고의 결과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 부족 해결에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극심해져 가는 간호원 부족 현상에 촉매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의료계의 의사 부족과 간호원 부족의 악순환은 더욱 계속될 것이며, 환자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다』고 통박하고 나섰다.

게다가, 더 많은 R.N.의 업무량은 간호원 지방 생활을 머뭇거리게 할 것이 들림없어, 간호원 양성은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부족과 간호원부족은 자칫하면 국민보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호원의 대량 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무계획적인 양적배출은 위험한 일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간호원 부족은 이제 의료계의 문제를 지나 전 국가적인 큰 일로 「클로즈·업」된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니,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과감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각 지부 회원 실태 (70년 10월말 현재)

취업별

지부	총수	취업	비혼	기혼	20세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이 상
서울	2,910	2,557	1,709	848	107	1,191	659	314	128	76	48	34
경기	171	159	106	53	1	86	42	9	14	2	3	2
강원	174	160	75	85	2	44	54	30	13	6	10	1
충북	136	128	45	83	—	35	43	24	7	8	10	1
충남	138	130	43	87	8	31	46	18	13	11	2	1
전북	164	157	61	96	—	27	57	45	20	5	1	2
전남	239	209	104	105	—	58	83	37	14	14	1	2
경북	404	375	238	137	13	170	67	64	19	20	7	15
경남	70	67	45	22	7	26	23	6	5	—	—	—
부산	526	498	290	208	30	109	124	84	42	16	7	5
제주	22	18	2	16	—	—	8	5	4	1	—	—
군진	481	481	366	115	—	181	139	127	29	3	2	—
계	5,435	4,939	3,084	1,855	168	2,039	1,345	763	308	162	91	63

취업 기관별

지부	총수	취업자수	국, 시, 도립병원	사립병원	개인원	양호교사	간호학교	보건소	사회, 법, 종교, 인체	국립기업체	관청	해외	기타	조선원
서울	2,910	2,638	778	1,161	23	66	111	78	25	40	22	295	38	—
경기	171	159	43	—	6	3	1	4	91	—	2	4	5	—
강원	174	160	15	—	—	9	13	35	77	1	5	5	—	—
충북	136	128	17	—	—	12	8	38	10	15	7	7	14	—
충남	138	130	39	2	—	12	6	51	10	4	6	—	—	—
전북	164	157	14	68	2	7	18	22	2	1	4	14	5	—
전남	239	209	61	68	3	14	12	22	—	—	3	6	20	—
경북	404	375	83	216	3	23	13	28	3	2	4	—	—	—
경남	70	67	29	4	—	6	2	14	7	5	—	—	—	—
부산	526	498	87	260	14	12	24	27	22	16	3	25	2	6
제주	22	18	8	1	—	3	1	3	2	—	—	—	—	—
군진	481	481	451	—	—	—	20	—	—	—	10	—	—	—
계	5,435	5,020	1,625	1,780	51	167	229	322	249	84	66	357	84	6

미 취업

지 부	총 수	미취업	미 혼	기 혼	20세이하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50이상	계
서울	2,910	353	104	249	3	74	113	82	26	30	10	15	
경기	171	12	3	9	—	1	8	1	—	2	—	—	
강원	174	14	—	14	—	3	2	4	3	2	—	—	
충북	136	8	1	7	—	—	2	4	1	—	1	—	
충남	138	8	—	8	—	1	2	3	2	—	—	—	
전북	164	7	3	4	—	1	5	1	—	—	—	—	
전남	239	30	5	25	—	5	5	15	5	—	—	—	
경북	404	29	16	13	1	6	9	10	1	2	—	—	
경남	70	3	—	3	—	—	3	—	—	—	—	—	
부산	526	28	5	23	—	6	14	4	3	1	—	—	
제주	22	4	1	3	—	—	3	—	1	—	—	—	
군진	481	—	—	—	—	—	—	—	—	—	—	—	
계	5,435	496	138	358	4	97	166	124	42	37	11	15	

해외 체재수

지 부	총수	일본	한국	미국	비국	캐나다	시독	스웨덴	스위스	비탈트	필리	호주	호란	말리	월남	계
서울	2,910	574	4	12	142	56	78	—	13	—	2	—	—	1	4	296
경기	171	61	—	2	3	1	—	—	—	—	—	—	—	—	—	4
강원	174	45	—	6	1	2	2	—	—	—	—	—	—	—	—	5
충북	136	71	—	2	2	—	5	—	—	—	—	—	—	—	—	7
충남	138	47	—	—	1	—	6	—	—	—	—	—	—	—	—	7
전북	164	30	—	2	3	1	9	1	—	—	—	—	—	—	—	14
전남	239	50	—	9	1	1	3	—	—	—	—	—	—	—	—	5
경북	404	36	—	1	9	1	4	—	1	1	—	—	—	—	—	16
경남	70	20	—	—	—	—	—	—	—	—	—	—	—	—	—	—
부산	526	148	1	11	9	2	7	—	2	—	2	1	2	—	—	25
제주	22	11	—	—	—	—	—	—	—	—	—	—	—	—	—	—
군진	481	84	—	—	—	—	—	—	—	—	—	—	—	—	—	—
계	5,435	1,177	5	45	171	64	114	1	16	1	4	1	2	1	4	379

출신교

지 부	총 수	간호학과	간호학교	간호고등학교	중 의 점	정 의 국	기 타
서울	2,910	513	1,759	539	43	41	15
경기	171	5	146	15	—	3	2
강원	174	9	82	57	1	4	6
충북	136	2	33	73	1	22	4
충남	138	4	55	76	—	3	—
전북	164	4	57	98	2	1	2
전남	239	13	80	131	—	6	9
경북	404	3	213	156	—	24	4
경남	70	2	8	57	—	3	—
부산	526	17	301	158	13	23	14
제주	22	—	12	3	—	7	—
군진	481	5	285	145	44	1	1
계	5,435	577	3,031	1,508	104	138	57